

금리 이벤트,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



1. 전주 주가 추이

단위: pt, 원, 십억원, 배, %

	현재가	Mkt. Cap.	PBR (2019F)	PER (2019F)	ROE (2019F)	Performance					Weekly Net Buy			공매도 거래대금	
						1 W	1 M	3M	6M	YTD	Institution	Foreigners	Pension	1W	1M
KOSPI	2,057	1,279,920	0.8	8.4	10.6	-1.7	-2.3	-9.9	-16.8	-16.6	333	-745	21	1,410	10,294
KOSDAQ	683	122,537	2.0	13.6	16.2	-1.0	-5.0	-13.7	-21.4	-14.4	-249	-67	-20	440	2,987
보험	16,898	20,098	0.5	10.3	5.6	-3.8	-2.4	-2.5	-10.7	-20.1	-2	-45	3	25	136
증권	1,678	16,812	0.7	8.6	8.1	-2.2	3.6	-5.8	-22.8	-15.5	-27	12	-14	22	128
삼성생명	84,600	16,920	0.5	11.5	4.4	-6.7	-7.1	-7.9	-23.4	-32.0	-29	-7	-11	3	22
한화생명	4,305	3,739	0.3	6.8	5.0	-6.4	-6.5	-11.1	-27.9	-37.7	-6	-2	-2	1	4
동양생명	5,630	908	0.4	10.3	3.7	-4.6	-2.6	-14.7	-25.2	-25.9	0	-1	-0	0	1
삼성화재	280,500	13,289	1.1	14.2	7.6	-1.9	0.9	3.5	7.1	5.1	16	-16	5	5	24
DB손해보험	71,600	5,069	0.9	7.1	12.6	-0.6	-0.1	6.4	19.9	0.6	5	-5	2	4	26
현대해상	43,000	3,844	0.8	7.1	12.1	0.5	3.7	14.5	22.0	-8.5	5	-2	4	8	47
메리츠화재	22,000	2,501	1.1	7.8	15.1	3.3	19.6	18.6	11.4	-6.4	6	-4	6	3	7
한화손해보험	5,760	672	0.4	4.3	10.4	-8.1	-11.0	-12.2	-18.2	-29.2	-0	-1	0	0	0
삼성증권	28,100	2,509	0.5	7.0	7.5	-2.8	0.4	-11.2	-24.3	-23.2	-1	-3	-1	3	11
미래에셋대우	6,650	4,378	0.5	8.8	6.2	-1.6	-3.3	-16.2	-31.4	-27.6	-5	-4	-9	11	57
NH투자증권	13,400	3,771	0.7	9.9	7.7	0.8	10.7	5.5	-17.8	-3.6	1	3	-1	2	23
한국금융지주	64,400	3,589	0.8	8.8	9.6	-4.6	6.1	-6.0	-31.3	-6.7	-4	3	0	3	25
키움증권	76,800	1,697	0.8	7.9	11.1	-8.4	5.2	-14.2	-38.1	-12.3	-12	7	-2	1	14

자료: 개별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2. 전주 동향

보험	<p>보험업종 약세 시현: 전주 보험업종은 생명보험사와 소형 손해보험사 주가 하락으로 시장대비 크게 하락하였음. 미국 기술주들의 하락,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유가 급락에 대한 해석을 경기 부진으로 이해하면서 내년 경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이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스케줄 대비 내년의 흐름이 약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11월 금통위 이후 채권금리 하락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보험업종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전주 생명보험사 실적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변동 요인은 없었음</p> <p>▶생명보험사의 주가 급락: 전주 생명보험사들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였음. 신저가 수준에 있어 가격측면의 부담이 크지 않았다는 점, 이익의 증가는 미미하겠지만 큰 폭의 이익 감소 또한 예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어주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었지만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생명보험사 자체적인 특이 요인은 없었음. 우리는 그 이유를 금리에서 찾고 있음. 한국의 장기채권 금리가 하락하고 있으며 내년의 미국 경기의 둔화가 동반된다면 금리 측면의 부담이 다시금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임. 금리는 단기적인 실적에는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중기적 측면의 실적 개선 모멘텀이 훼손된다는 측면과 IFRS17/K-ICS 측면에서의 영향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장기투자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임.</p>
-----------	---

증권	<p>증권업종 약세 시현: 전주 NH투자증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하였음. 부진한 시장 흐름이 이어지며 일평균거래대금이 7.8조원 수준까지 하락하였고 주도 업종 부재로 인하여 거래대금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2018년 상반기의 높은 기저로 인하여 2019년 이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3분기 실적에서 확인된 PI 투자성과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하여 4분기 부진한 주식시장 흐름에 대한 우려도 주가 반등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p> <p>▶카카오페이 금융상품 완판: 카카오페이가 판매한 금융상품이 완판되어 약 18억원의 자금을 모집하였음.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이후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나온 언론보도라서 관심이 확대되었음. 다만 판매된 상품은 현재 토스, 어니스트 펀드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P2P 대출 상품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P2P 업체인 퍼플펀드에서 제공받은 상품임. 소액/높은 예상 투자자익률 등으로 투자자들에서 높은 소구력이 존재하며 이미 다른 P2P회사들을 통해 확인된 사항임.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파워는 인정되지만 카카오로서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음. 기존 증권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상품으로 확대 여부는 관찰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함</p>
-----------	---

3. 주간지표 업데이트

	전주	YTD	Monthly							Quarterly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MoM	4Q17	1Q18	2Q18	3Q18	4Q18	QoQ	
일평균거래대금	조원	17년대비, %						누계	%					누계	%	
KOSPI+KOSDAQ	7.8	-14.1	12.4	9.0	8.8	10.8	9.6	8.5	-11.2	11.8	13.8	13.9	9.4	9.1	-3.3	
KOSPI	4.6	-14.7	7.5	5.5	5.2	6.1	6.1	5.3	-13.2	6.0	7.0	8.1	5.6	5.7	3.2	
KOSDAQ	3.2	-13.4	4.9	3.4	3.5	4.7	3.5	3.2	-7.7	5.8	6.8	5.8	3.8	3.3	-12.7	
신용잔고	조원	YTD, %						조원	%					조원	%	
KOSPI+KOSDAQ	9.5	-3.0	11.8	10.8	11.3	11.8	9.3	9.5	2.3	9.8	11.3	11.8	11.8	9.5	-18.7	
KOSPI	4.9	9.5	6.0	5.5	5.7	5.9	4.8	4.9	1.5	4.5	5.4	6.0	5.9	4.9	-17.1	
KOSDAQ	4.7	-13.4	5.8	5.3	5.6	5.9	4.5	4.7	3.2	5.4	5.9	5.8	5.9	4.7	-20.4	
국고채금리[기말]	%	YTD, bp						%	bp					%	bp	
1년	1.83	1.4	1.85	1.83	1.73	1.85	1.80	1.83	3.1	1.85	1.89	1.85	1.85	1.83	-1.0	
3년	1.91	-20.3	2.12	2.13	1.91	2.00	1.94	1.91	-3.0	2.13	2.22	2.12	2.00	1.91	-9.0	
5년	2.01	-32.8	2.35	2.36	2.10	2.18	2.08	2.01	-6.8	2.35	2.43	2.35	2.18	2.01	-16.8	
10년	2.17	-32.7	2.56	2.57	2.31	2.36	2.25	2.17	-8.0	2.47	2.62	2.56	2.36	2.17	-19.0	
약정 MS	%	17년대비, %p						%	%p					%	%p	
삼성증권	5.4	-0.5	6.0	6.1	6.0	6.0	5.6	6.1	0.4	6.0	6.2	6.2	6.0	5.7	-0.4	
미래에셋대우	11.7	-0.9	12.3	12.4	12.2	12.3	12.0	12.6	0.7	13.2	13.3	12.8	12.3	12.0	-0.3	
NH투자증권	6.2	0.2	6.4	6.5	6.9	6.5	7.3	6.4	-0.9	6.4	6.3	6.4	6.6	7.2	0.6	
한국금융지주	5.7	-0.1	5.1	5.3	5.4	5.6	5.4	5.6	0.2	5.8	5.7	5.3	5.4	5.4	-0.0	
키움증권	15.0	-1.5	17.9	16.9	17.4	17.4	15.9	16.0	0.1	17.4	17.5	18.2	17.2	15.9	-1.3	

자료: KOFIA, Check, KRX

4. 금주 전망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주 보험업종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30일)과 Fed의 의사록 공개, 28일 파월 총재의 연설 등 금리와 관련된 이벤트에 따라 주가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BOK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점,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지만 아직은 기준금리 인상의 당위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리 측면에서는 보험업종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이번 금통위 이후 2019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미미하며 미국 역시 2019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금주의 이벤트들이 금리 및 보험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더라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지만 2019년을 생각하면 일부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따라서 금주 보험업종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으로 권고함. 추가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관련 이벤트도 발표될 수 있음. 이 또한 시장에서 3%내외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3% 후반 등 서프라이즈 나온다면 손해보험사들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생명보험사의 경우 동참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

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주 증권업종은 금리와 관련된 이벤트로 시장대비 약세를 시현할 수 있겠지만 PI 부분에 노출이 큰 회사가 아니라면 제한적인 주가 흐름을 예상하고 있음 한국의 기준금리 상승으로 단기채권금리가 영향을 받을 것이고 증권사의 채권평가손실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음. 하지만 이미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존재하였으며 이후 금리와 관련해서는 중립적인(단기채권)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증권업종에 추가적인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다만 미국 기술주들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주 후반 예정된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의 타협의 가능성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증권업종의 시장대비 강세를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만 주가 측면에서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이며 PI 부분에 노출이 크지 않은 증권사의 경우 실적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에서 하방경직성은 일정부분 확인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

5. 금주 일정

일자	국가	내용	전기치	예상치
11월 27일	미국	S&P/CS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 (YoY) (9월)	5.5%	5.3%
11월 28일	미국	GDP (QoQ) (3분기)	3.5%	3.5%
11월 28일	미국	상품 무역수지 (10월)	-76.25B	-77.00B
11월 29일	미국	원유재고	4,851M	
11월 29일	미국	개인지출 (MoM) (10월)	0.4%	0.4%
11월 30일	중국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11월)	50.2	50.6
11월 30일	중국	중국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11월)	53.9	

6. 전주 뉴스/자료 Review

뉴스	<p>▶"할인 대신 보장 확대" DB손보 운전자보험 실험 나섰다 (데일리안) DB손해보험이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장착 차량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깎아 주는 기존 운전자보험들과 달리 사고 시 보장 자체를 늘려 주겠다는 신개념을 내세우는 운전자보험에 대한 독점 판매권 확보에 나섰다</p> <p>▶내달 초 삼성화재 시작으로 車보험료 '들먹' (한국보험신문) 삼성화재가 연내 보험료 인상을 목표로 이번주까지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신청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내다 초부터 줄줄이 오를 것으로 예상됨</p> <p>▶[대출금리 개선입박]은행권 대출금리 개선안, 어떤 내용 담거나...금융위, 이달 발표 (뉴시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해 온 개선안을 최종 확정해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임</p> <p>▶보험 건전성 규제 재검토..."열렬하던 곳 문닫는 일 없을것" (연합뉴스) K-ICS와 함께 도입하려던 국제회계기준(IFRS17)의 도입이 연기된 데다, 엄격하고 경직된 형태로 K-ICS를 도입할 경우 보험사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 때문에 금융당국이 재검토에 착수했음</p> <p>▶2021년 맞춰 채권 발행했는데...중소형 보험사, IFRS17 연기 역효과 (뉴스웨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시기가 2022년으로 연기되면서 당초 시행 예정 시기인 2021년에 맞춰 선제적 자본확충에 나섰던 일부 중소형 보험사가 오히려 1년치 이자 부담만 더 떠안게 됐음</p> <p>▶국회,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입법 추진..."금융보험사 의결권 5% 제한" 특위안 수용 (아시아경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전부안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담긴 특별위원회 권고안이 상당 부분 수용 됐음. 금융보험사에 대해 별도로 5% 한도로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음</p> <p>▶커피보다 싼 미니보험... 한달 180원에 유방암, 1500원에 위암 보장 (조선비즈) 최근 국내 보험사들이 고객이 필요한 보장 한두 가지만 담고 온라인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크게 낮춘 미니보험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음</p> <p>▶보험권으로 넘어온 카셰어링 車보험...業일까? 壽일까? (FETV) 악사손해보험이 카셰어링 업체 쏘카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인수를 시작하면서 손해보험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음</p> <p>▶발행어음 사업 증권사 2곳, NCR 어떻게 변했나 (연합인포맥스) 지난 3분기 발행어음 사업 1호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순자본비율(신NCR)은 전 분기보다 상승한 반면, 발행어음 2호 NH투자증권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p> <p>▶카톡으로 펀드·증권 투자해볼까 ... SNS 재테크 시대 (중앙일보) 카카오톡의 핀테크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톡을 통해 펀드·증권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재테크 서비스를 새로 선보였음</p> <p>▶공모형 부동산 펀드 출시 속속...대출형 상품도 눈길 (머니투데이) 주택분양시장 우려에도 증권사 등 판매사가 최소가입 금액을 100만원으로 낮추는 등 공모형 부동산 상품을 자산관리 사업의 돌파구로 활용하고 있음</p> <p>▶가계대출 관리 압박한 금융당국 (서울경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빚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금융당국은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한 금융회사에 대해 내년 목표치 설정 때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음</p> <p>▶무디스 '韓보험사 채권 재분류, 자본적정성 지표 저해' (연합뉴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0일 한국 보험사들의 금융자산 계정 재분류가 자본 적정성 지표와 듀레이션(잔존만기) 관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음</p> <p>▶보험설계사 4대보험 적용, 보험사 부담은 1.3조·일자리 16만개 감소 우려 (아주경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의무 적용되면 보험사는 연 1조2908억원의 비용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실적이 저조한 보험설계사 16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음</p> <p>▶'뚝뚝한 앱' 등장에 밀고 있는 보험사들 (Money S) 보험플랫폼앱이 단순 보험비교서비스를 넘어 자산관리, 설계사 지원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고객과 설계사를 사로잡고 있어</p> <p>▶제2 온라인보험사 연내 출현 물건너 가나 (파이낸셜뉴스) 소액·단기보험사와 온라인 전문보험사 등 특화보험사 설립을 가로 막았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금융업 진입규제개편방안'을 발표, 핀테크를 활성화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겠다 하였지만 제2의 온라인보험사의 출범을 위한 금융당국의 예비인가가 연내 나올지 의문임</p> <p>▶금감원, 금리상승에도 보험 평균공시이율 제자리 (뉴스핌) 올해 시장금리가 상승했지만 보험사가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공시이율을 올리지 않고 내년에 적용하는 평균공시이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2.5%로 결정됐음</p> <p>▶금감원, 금융사 내부통제 혁신안 법제화 '가시발길' (이투데이) 금융감독원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혁신안의 핵심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이 사실상 어렵게 됐음</p> <p>▶내년부터 장기이식비 비용도 실손보험 보상 (뉴스핌) 내년부터 장기이식에 따른 의료비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서 보상,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표준약관을 개정했음.</p> <p>▶[핀테크의 진화] ②"토스보험입니다" ...긴장하는 보험사들 (뉴스웜) 핀테크 보험사들이 기존 보험업계와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토스가 선제적으로 직접 보험 영업에 나서면서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음</p> <p>▶수당 일원화에 배상책임까지...커지는 GA 압박 강도 (EBN)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독립보험대리점(GA)에 대한 압박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음</p> <p>▶[시그널]4대銀 "인수금융 참여 안해"...웅진, 코웨이 자금조달 뼈격 (서울경제) 인수합병(M&A)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대출하는 4대 은행과 대형 공제회가 웅진(016880)그룹의 코웨이(021240) 인수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담보 비율과 성장성이 낮아 대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p> <p>▶아시아나항공 계열 IPO 순풍...에어부산 상장예심 통과 (서울경제) 주관사가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인 에어부산·아시아나HDT 등 아시아나항공(020560) 계열의 기업공개(IPO)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p> <p>▶손보사 '빅 4' 자동차보험료 줄줄이 오른다 (아주경제) 삼성화재는 최근 자동차 정비업체들과의 재계약 결과를 반영해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료 1.2% 인상을 위한 요율 검증을 의뢰했음. 현재 전체 중 3분 1과 재계약을 마친 만큼 보험료도 인상요인의 약 3분의 1을 반영하여, 1.2% 인상을 결정했음.</p>
----	---

7. Global Peers

		현재가 (Local)	Mkt. Cap. (USD bn)	PBR (FY18F)	PER (FY18F)	ROE (FY18F)	ROA (FY18F)	Performance (%)				
								1 W	1 M	3M	6M	YTD
한국	KOSPI	2,057		0.9	8.6	9.9	9.4	-1.7	1.5	-10.3	-16.4	-16.6
	보험	16,898		0.7	8.2	6.5	0.5	-3.8	-3.0	-2.1	-8.6	-20.1
	삼성생명	84,600	14.9	0.5	8.0	6.4	0.6	-6.7	-8.7	-7.5	-20.9	-32.0
	한화생명	4,305	3.3	0.4	6.8	5.6	0.4	-6.4	-8.0	-10.4	-25.6	-37.7
	동양생명	5,630	0.8	0.4	9.6	4.7	0.4	-4.6	-7.7	-13.9	-22.9	-25.9
	삼성화재	280,500	11.7	1.0	12.2	8.8	1.4	-1.9	-0.4	3.9	9.8	5.1
	DB손해보험	71,600	4.5	1.1	8.3	13.0	1.5	-0.6	-1.5	8.3	18.9	0.6
	현대해상	43,000	3.4	1.1	8.3	14.1	1.1	0.5	2.3	14.2	21.5	-8.5
	메리츠화재	22,000	2.2	1.4	9.8	14.1	1.3	3.3	18.6	18.6	8.4	-6.4
	한화손해보험	5,760	0.6	0.6	4.2	11.3	0.9	-8.1	-11.0	-14.2	-17.2	-29.2
	증권	1,678		0.6	7.5	8.5	0.8	-2.2	5.1	-6.2	-22.1	-15.5
	삼성증권	28,100	2.2	0.5	7.7	7.3	0.9	-2.8	0.7	-11.9	-25.0	-23.2
	미래에셋대우	6,650	3.9	0.6	8.9	6.4	0.6	-1.6	-0.6	-16.7	-30.4	-26.0
	NH투자증권	13,400	3.3	0.8	9.3	8.4	0.9	0.8	9.8	5.1	-18.0	-3.6
	한국금융지주	64,400	3.2	0.8	5.9	14.6	1.2	-4.6	3.9	-5.6	-31.6	-6.7
	키움증권	76,800	1.5	0.9	6.7	14.4	1.9	-8.4	8.2	-14.6	-37.0	-12.3
일본	Nikkei225	21,647		1.6	15.5	10.5	2.0	-0.7	-1.7	-3.4	-4.6	-4.9
	보험	1,020		0.8	10.6	6.9	0.9	-0.8	-4.5	-0.9	-3.7	-3.8
	Dai-ichi Life Holdings	4,001	25.1	2.2	46.6	4.7	2.6	-3.7	-8.9	-9.2	7.8	36.2
	Japan Post Insurance	2,832	15.1	0.8	18.6	4.6	0.1	3.0	7.3	16.9	13.5	6.9
	Tokio Marine Holdings	5,536	35.3	1.0	15.2	7.3	1.1	4.2	8.2	5.4	5.4	9.0
	증권	366		0.8	12.1	4.6	0.2	-3.7	-7.1	-4.4	-14.3	-15.8
	Nomura Holdings	511	16.5	0.6	7.1	9.0	0.6	-0.7	-2.7	0.6	-13.0	-23.2
	Daiwa Securities	619	9.3	0.8	9.5	8.6	0.6	-2.0	-4.7	-6.6	-4.6	-12.4
	SBI Holdings	2,483	5.2	1.2	10.8	11.9	1.2	-15.5	-14.4	-13.7	-19.3	5.4
	Hang Seng	25,928		1.2	10.9	12.9	1.1	-1.0	4.9	-6.3	-15.2	-13.3
중국/홍콩	상해A주 지수	2,701		1.2	10.5	12.2	1.1	-3.7	-0.8	-5.5	-17.9	-22.0
	보험	136		1.2	11.6	10.4	1.7	-4.1	1.0	-6.1	-14.9	-24.8
	China Life	16	79.7	1.2	13.6	9.6	1.1	-3.9	-4.4	-11.2	-25.7	-33.4
	Ping An Insurance	74	168.5	2.2	12.0	19.7	1.5	-3.2	-1.3	0.9	-3.9	-8.2
	AIA	64	98.4	2.3	19.9	12.1	2.2	-1.3	7.4	-3.6	-9.6	-4.4
	증권	91		1.2	22.0	5.4	1.5	-6.1	5.4	3.8	-19.4	-27.6
	CITIC Securities	14	27.7	1.0	13.7	7.5	1.9	-4.9	4.5	2.1	-25.9	-10.4
	Haitong Securities	8	14.4	0.7	11.9	5.9	1.5	-5.5	2.3	13.6	-18.6	-28.7
	Huatai Securities	13	18.7	0.9	13.0	6.8	1.8	-8.6	2.6	4.3	-17.7	-18.9
	S&P500	2,633		3.0	16.1	18.8	3.4	-3.6	-1.0	-8.4	-3.3	-1.5
미국	보험	369		1.3	11.7	11.0	#N/A N/A	-1.5	3.3	-4.9	-4.3	-8.2
	AIG	43	38.4	0.6	16.1	4.3	0.5	1.6	2.3	-18.6	-18.6	-27.2
	Metlife	43	42.2	0.9	8.0	11.2	0.8	-4.5	5.0	-7.8	-10.2	-15.3
	Prudential Financial	90	37.0	0.8	7.4	11.3	0.6	-3.2	-2.9	-9.0	-10.3	-22.0
	증권	181		1.9	13.1	13.7	1.3	-2.3	2.3	-9.8	-13.8	-10.8
	JP Morgan	107	354.7	1.5	11.5	13.6	1.3	-3.1	1.7	-7.0	-3.6	-0.3
	Goldman Sachs	189	73.1	0.9	7.5	13.1	1.1	-7.2	-11.6	-19.6	-19.5	-25.8
	Charles Schwab	44	59.5	3.2	18.1	19.4	1.3	-6.8	2.1	-12.8	-23.1	-14.2
	MSCI Europe	120		1.6	13.4	10.5	1.0	-1.1	0.5	-7.3	-9.2	-8.9
	보험	72		1.1	10.4	12.6	0.5	-1.7	1.3	-2.6	-6.4	-6.0
유럽	Allianz	184	88.7	1.2	10.4	11.7	0.9	-2.6	0.7	-0.6	-1.7	-3.7
	AXA	21	57.5	0.7	8.3	8.8	0.5	-3.2	-5.3	-3.9	-6.8	-15.5
	Prudential plc	1,519	50.4	2.2	10.1	21.6	0.7	-2.5	0.8	-12.5	-19.7	-20.3
	Munich Re	190	32.2	1.0	11.2	9.0	1.1	-0.8	2.0	2.6	1.0	5.3
	증권	62		1.0	13.1	6.4	0.3	-1.5	-0.5	-13.2	-16.6	-21.3
	UBS	13	51.9	1.0	9.9	9.6	0.5	-2.0	1.0	-13.7	-15.2	-23.8
	Credit Suisse	12	30.3	0.7	11.7	5.7	0.3	-4.3	-5.7	-19.8	-26.7	-30.9
	Deutsche Bank	8	19.1	0.3	23.8	0.8	0.1	-5.0	-7.4	-16.8	-21.3	-48.5

자료: 한국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한국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이외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8. 주요국 금리 동향

			금리 수준 (%)						변동폭 (bp)				
			현재	1W	1M	3M	6M	연초	1W	1M	3M	6M	YTD
한국	국고채	1 Year	1.834	1.794	1.830	1.754	1.867	1.853	4.0	0.4	8.0	-3.3	-1.9
		3 Year	1.912	1.945	1.992	1.965	2.225	2.134	-3.3	-8.0	-5.3	-31.3	-22.2
		5 Year	2.007	2.058	2.137	2.175	2.505	2.347	-5.1	-13.0	-16.8	-49.8	-34.0
		10 Year	2.165	2.220	2.307	2.395	2.740	2.467	-5.5	-14.2	-23.0	-57.5	-30.2
일본	국고채	1 Year	-0.144	-0.158	-0.146	-0.121	-0.137	-0.145	1.4	0.2	-2.3	-0.7	0.1
		10 Year	0.100	0.104	0.152	0.100	0.046	0.048	-0.4	-5.2	0.0	5.4	5.2
중국	국고채	1 Year	2.502	2.553	2.890	2.905	3.125	3.834	-5.1	-38.8	-40.3	-62.3	-133.2
		10 Year	3.417	3.362	3.585	3.616	3.666	3.902	5.5	-16.8	-19.9	-24.9	-48.5
미국	국고채	1 Year	2.655	2.659	2.645	2.422	2.281	1.732	-0.4	1.0	23.3	37.4	92.3
		10 Year	3.039	3.063	3.168	2.826	2.994	2.405	-2.4	-12.9	21.3	4.6	63.4
유럽	국고채	1 Year	-0.557	-0.562	-0.609	-0.527	-0.569	-0.611	0.5	5.2	-3.0	1.2	5.4
		10 Year	0.340	0.367	0.409	0.339	0.507	0.427	-2.7	-6.9	0.1	-16.7	-8.7

자료: Bloomberg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강승건)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종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 수):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종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